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989

JICA LIBRARY



J115362161

국제협력사업단
연수사업부

JICA

110
36
TAY

LIBRARY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989

TAY
J R
90-15



1153621 (6)

머 리 말

「대한민국청년 초청사업」은 금년도 제3회째를 맞이 하여 근로청년, 학생, 교원 및 청년지도자의 4 그룹 계99명을 초청하였습니다.

청년들은 1개월간의 체재기간중, 강의, 시찰, 기관방문, 합숙세미나, 홈스테이 등 도쿄 및 4지방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각 그룹의 2~3명의 청년들이 써 주신 감상문과 일본측의 합숙세미나 참가자, 민박가족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 본사업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서 그 추억의 실마리가 되고, 또 참가자들의 체험을 보다 많은 분들과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어판도 아울러 작성하여, 참가한 청년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더욱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계속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0년 3 월

국제협력사업단

연수사업부

부장 미타라이 아키히로

(御手洗 章弘)

신뢰와 우정에의 출발

1989년도 한국청년 초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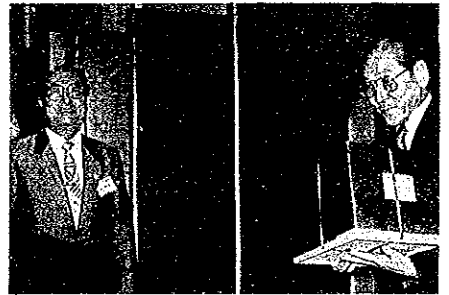
국제협력사업단(國際協力事業團) 기시(岸)부총재의 환영의 인사



박단장의 인사



앞으로의 1개월을 상상해본다



박단장의 기념품 증정

환영회



공통프로그램



일본어회화 연습



무도 체험

도내 분야별 프로그램



노동성 방문



문부성 방문



아사쿠사(浅草) 견학



다도 체험



프로야구시합 관람

합숙세미나



서로 자기 친구를 소개



교류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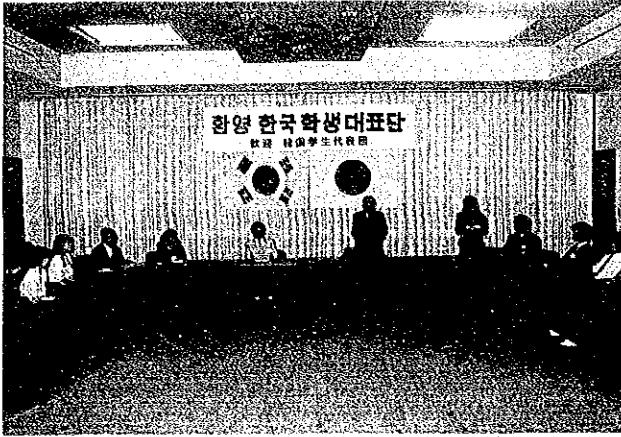


일번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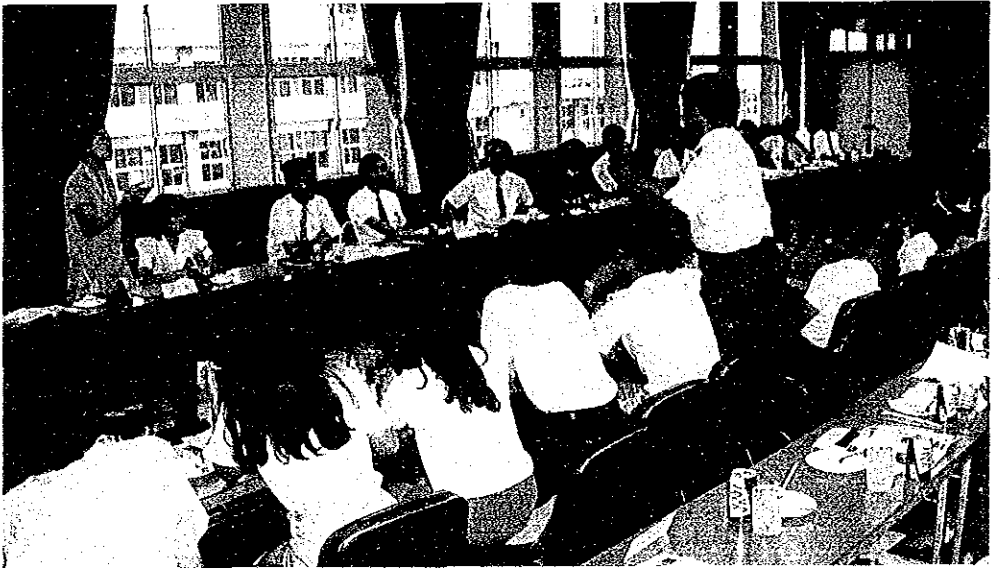


레크리에이션

지방 분야별 프로그램



철(隴)지사 방문



활발한 질의응답



수박깨기 게임



일본청년들과의 교류회



꽃꽂이에 도전

홈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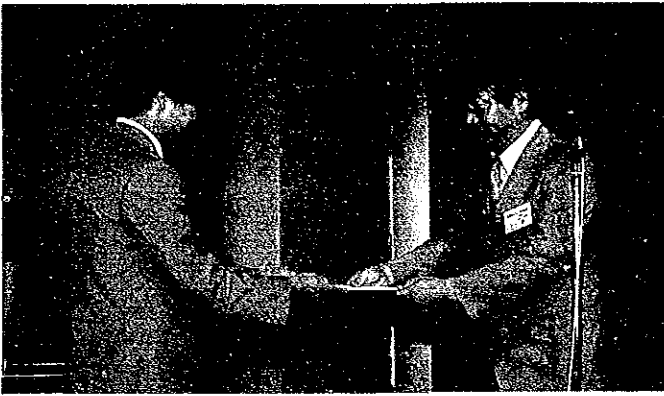


유카타를 입고



즐거운 식사

환 송 회



각 그룹의 반장에게 참가증과 앨범 수여



국제협력사업단(國際協力事業團) 티가미(TIGAMI) 청년초빙업무실장의인사



박단장의 사사(謝辭)





차 례

머리말

1.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 사업의 개요	3
(2) 실시협력단체와 실시현	5
2. 초청 청년 감상문	7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15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21

<실적자료>

1. 서울창구기관(서울프로그램실시기관)	26
2. 서울 프로그램 실시일정	26
3. 실시일정	27
4. 초청 청년 명부	31
5.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40
6. 1989년도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41
7.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42

1.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 사업의 개요

1) 목적

21세기를 향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보다 확고하고도 결실있는 관계로 하기 위해, 미래의 국가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한국청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동세대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돈독히하고 진실한 우정과 신뢰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시방법

①초청인원수

1989년도는 99명의 청년을 동시기에 초청한다.

②초청대상자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18~35세전후의 청년.

(각그룹의 리더, 사부리이더는 제외한다)

①근로청년	31명
②학생	30명
③교원	20명
④청년지도자	18명

③초청기간 및 시기

초청기간은 7월11일~8월1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출발전에 수일간의 서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프로그램개요

수일간 — 일본도착 — 31일간 — 귀국	서울 프로그램	서울의 강사에 의한 일본에 관한 강의 일본어 일상회화 학습 도일에 관한 설명	
	공통 프로그램	일본의 전반적인,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강의 및 시설견학	
	분야별 프로그램	도내분야별프로그램	각분야의 전반적인,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강의 및 시설견학
		합숙세미나프로그램	일본의 같은 세대, 같은 분야의 청년과 친목을 같이하는 의견교환, 교류의 자리
		지방분야별프로그램	지방에서의 관련시설 견학, 지방청년과의 토론, 체험, 교류등의 프로그램전개
		홈스테이프로그램	일본의 가정생활 체험
	견학여행	広島(히로시마), 京都(쿄토)등 역사적 도시의 견학	
	평가 프로그램	방일성과에 관한 의견교환	
	아프터 케어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각종 시책	

4) 인수체제

본 계획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關係省庁調整連絡會議 (관계기관 조정연락회의)

(i) 임무: 본 계획의 실시 및 운영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에 관한 협의.

(ii) 구성멤버:

- 外務省經濟協力局技術協力課 (외무성 경제협력국 기술협력과)
- 아시아局地域政策課 (아시아국 지역정책과)
- 大臣官房文化交流部文化第二課 (장관 官房(간보우) 문화교류부 문화제2과)
- 總務庁靑少年対策本部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 文部省學術國際局國際企画課教育文化交流室 (문부성 학술국제국 국제기획과
교육문화 교류실)
- 農林水産省經濟局國際部國際協力課 (농림수산성 경제국 국제부 국제협력과)
- 勞働省大臣官房國際勞働課 (노동성 장관官房(간보우) 국제노동과)
- 自治省大臣官房企画室 (자치성 장관 官房(간보우) 기획실)
- 國際協力事業團 (국제협력사업단)

②実行連絡調整委員會 (실행연락조정위원회)

(i) 임무: 실행계획의 운영, 분야별 프로그램의 실시 및 각 프로그램간의 연대에 관해 협의하고, 프로그램실시상의 문제에 관해 국제협력사업단에게 조언.

(ii) 구성멤버 : 관계성, 청에서 추천된 민간의 실시협력단체.

- | | |
|------------------|-----------------------|
| (社) 靑少年育成国民會議 | ((사)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
| (任) 中央靑少年団体連絡協議會 | ((임) 중앙 청소년 단체 연락협의회) |
| (財) 世界靑少年交流協會 | ((재) 세계 청소년 교류협회) |
| (社) 日本國際生活体験協會 | ((사) 일본 국제 생활 체험협회) |
| (社) 全國農村靑少年教育振興會 | ((사)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진흥회) |
| (社) 日本經濟靑年協議會 | ((사) 일본 경제 청년협의회) |
| (社) 勤勞厚生協會 | ((사) 근로후생협회) |
| (財) 유스위커能力開發協會 | ((재) 유스위커 능력 개발협회) |
| (社) 國際交流서비스·協會 | ((사) 국제 교류 서비스협회) |
| (社) 靑年海外協力協會 | ((사) 청년 해외 협력협회) |
| (財) 國際協力서비스·센터 | ((재) 국제 협력 서비스·센터) |

5) 실시운영분담

	프로그램 감리	프 로 그 램 운 영		식사, 숙소의 수배
		연 락 조 정	운 영	
현지프로그램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 서비스·센터)	각국실시기관 (제대한민국일본국 대 사 관)	각국실시기관 (제대한민국일본국 대 사 관)
공동프로그램 (도 내)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서비스·센터	國際協力서비스·센터	國際協力서비스·센터
도내분야별 프 로 그 램 (도 내)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합숙세미나 프 로 그 램		실시협력단체 지방협력단체 (國際協力事業團 국 내 지 부)	지방협력단체 (國際協力事業團 국 내 지 부)	지방협력단체
지방분야별 프 로 그 램 (홈스테이를 포함)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견학여행 (히로시마, 교오도등)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서비스·센터	國際協力서비스·센터
평가프로그램 (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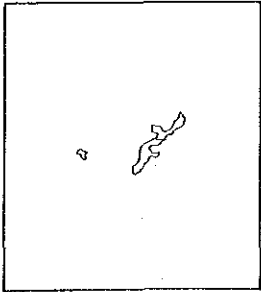
(주) 지방분야별 프로그램은 지방공공단체의 지도와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2) 실시협력단체와 실시현

분 야 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근로청년	31	勤勞厚生協會	宮城
학 생	30	世界靑少年交流協會	香川
교 원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北海道
청년지도자	18	靑少年育成国民會議	島根

* 공동프로그램에 관하여는 國際協力서비스·센터가 전그룹에 대해 실시한다.

한국청년 프로그램 실시현도



고향을 그리워 해 봄은 제법 괜찮은 일이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31일이라는 긴 여정을 타국에서 보내다라는 느낌 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고 반면에는 대한민국 청년 대표라는 명분 앞에서 긴장을 해야만 했다. 어쨌든 타국이라는 관념 속에서 시작되어진 여행길이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을 가져왔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거리가 비행기로 2~3시간 이라는 점에서 실감이 나질 않았고 거리도 비슷하고 사람들의 모습도 틀림없이 똑같았다.

한국말을 건네면 곧 대답할것 같은 그러한 생각마저 들었으니 말이다.

새로운 이미지 속에서 이케브코로의 일주일엔 전체 단원들에게 크니콘 의미를 부여 했던것 같다.

처음으로 일본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 해야했고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거리를 구경하는 쇼핑을 하든 술을 마시든 모든것들이 새로움이었다. 그 새로움 속에서 시작된 일정들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틀리지 않으리라. 각계 각층의 유능한 젊은이들의 강한 개성의 마찰음마저도 꼭 짜여진 일정 속에서 크니콘 활력소가 되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스스로 없이 손을 맞잡았다. 젊은이들이기에 그 특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갔고 그 하나에서는 국가라는 개념도 이념도 없었다.

단지 맛잡은 손에는 뜨거운 피가 흘렸고 의미있는 미소가 넘쳤을 뿐이었다.

거기에 젊은이들로서 이러한 글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창공을 잡고 싶소

「저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벗겨진 아련한 곳에 무엇이 있을까 마는 벗겨도 벗겨도 또 벗겨지는 그래도 또 벗겨지는 아련한 저 곳에 무엇인가(?)있을 듯 싶어지오.

그래서 창공을 잡고 싶소.

신비의 아련함을 손 안에 두고 싶어져 미지의 세계가 동경 되어지는 쳐다보는 눈빛에 힘을 줄 줄 아는 우리가 젊음이 여기에 창공을 잡으려 하외다」

이제 이 곳의 생활을 청산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주위를 정리 해야한다.

많은 우여곡절도 어처구니 없이 웃어야 했던 미스터리도 일본국의 여행이라는 과정이었기에 가능 했었던것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국내에 들어가 예전의 생활에 하루 빨리 익숙해져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빌어본다.

1개월간의 일본체재를 마치며



박 경애(朴 敬愛)
근로청년그룹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속담이 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영어회화나 일본어회화를 공부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의 답답함이란 병어리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와같이 언어, 습관, 풍물, 문화자체가 다른 나라에서의 한달생활이란 쉽지만은 았았다. 우정 교류라는 커다란 명제 앞에선 우리의 한달생활은 무척이나 다양각색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4H회원들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각 분야의 수상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일을 하는 사람들과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들, 그야말로 작은 지구촌인 것 같은, 그룹사람들과의 생활자체도 흥미로웠지만, 동성한 사람들과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이 지면이 모자라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자체도 다양했다. 분야별로 특색있게 따로 행동했던 점은 이해가 가지만 서로의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던 반도체 연구소 견학과 양국청년 합숙

세미나에서 한국청년에 의한 one-side한 talking, 인원수 불비례 회의개최, 전문지식의 주입식 강의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었다.

반면, 양국청년합숙세미나는 홈스테이 만큼이나 기대되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였다. 생각의 교류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박3일이 짧게만 느껴진 것은 젊음! 그 자체로도 충분한 대화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 하는 적극성과 궁금증이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장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헤어짐에 아쉬워 눈물짓던 그 시간이 영원히 가슴에 남을 것이며, 또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싶은 마음에 교류가 계속 이어지리라 본다.

특히 홈스테이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맺어진 일본가정과의 교류와 추억은 21세기 우정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본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부담감이 없이 각자의 개인방식으로 하나하나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생활모습등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간다.

내가 2박3일 머무른 일본가정은 부모님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시다-순이치씨의 집이었다. 여러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은 마지막 날 JC회원들과 함께 가두모금한 일이다. 센다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의 모금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거리표정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일본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 회원중 2시간뿐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회화책을 보고 한국말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열심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

마지막날의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기시다-순이치씨가 나에게 보여준 호의와 정성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리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난 아쉬운 사람들과의 이별을 많이 경험했다.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정다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

보다도 내가 맡은 분야의 일과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웠고, 체험적 일본어 학습에서 만난 호리구찌양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다.

이 모두가 내게 있어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며,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과거치와 문교부 그리고 JICA측에 감사드린다.



일본 국민에게 드리는 글



고 석두(高錫柱)
학생그룹

일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국의 초청을 받아 1달 동안 일본을 방문하게 된 한국의 대학생입니다. 먼저 그동안 일본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호의와 친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일본의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재의 보전에 기울인 귀국 국민들의 정성은 정말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학생들과 며칠동안 합숙하면서 나눈 격의 없는 대화와 가가와현에서의 민박 생활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여러곳의 여행이 일본을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합숙 세미나와 민박 생활은 일본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일본에 오기 전에 저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일 양국 관계에 뒤틀리지 못한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히로시마의 평화 공원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귀국에 의해 강제로 끌려왔다가 원폭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의 위령비가 공원 한구석에 서있는 것을 보고 저는 분노의 감정이

간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모든 일정은 끝났지만 나는 이번 日本訪問을 계기로 日本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었으며 불행했던 兩國의 과거를 깊이 되새길 수가 있었으며 나의 배타주의적 관념에서 미래지향적 진취적인 관념으로의 전환과 많은 점을 배우고 돌아 간다는 점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끝으로 이번 事業을 주관한 JICA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明年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日本訪問을 마치면서



유 철수(劉 哲受)
학생그룹

우리가 成田에 도착할때에 뜨거운 태양은 4時를 조금넘은 時間을 가리켰다. 복잡한

VISA검사와 "잠시대기"란 참으로 지루하고 고단했다. BUS 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나는 日本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지고 몸을 실었다. HOTEL에 도착하여 가방정리 한 후 창밖을 향해 소파에서 길게 숨을 내뿜었다. 조용하면서도 질서지키는 日本人들을 보게 되었다. 좋은 인상이 나에게 와 닿았다. 이렇게 하여 나의 日本生活은 시작되었고, 거의 1달을 다 보낼때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日本人들의 인상은 변하지 않았던것처럼 느껴진다.

1 달

벌써 1달이 다 지나간다.

"귀국"한다는 표현에 시간의 유수처럼 흘러버리게 알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젊음과 청춘을 발산한다는 20대에 나는 한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 그리고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어 日本과의 헤어짐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듯한다.

조그마한 한국내에서도 濟州島라는 한정된 지

역에서 자란 나에게도 참으로 좋은 체험을 하게 되어 기쁘기 한이었다. 축소지향적이라는 日本을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 日本인들과 직접 피부를 맞닿아 生活하는 민박과 日本學生들과의 합숙세미나등은 한·일간의 양국의 위치를 생각하게 했고, 내 祖國 내 國家를 사랑하게 했다.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어 日本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고 이미지를 개선 시킨듯 하다.

한·일간에 있어서 무모한 자존심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로서 親日이 아니라 日本을 알고 떠나는 知日이 되어가는 한국 학생 대표단들 가슴속에는 세계에 젊은이가 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보겠다는 굳센 각오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나의 위치는 어디쯤이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끝으로 이러한 국제교류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JICA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산다는게 뭔지



장 영주(張 英周)
교원그룹

비관의 말이 아니다. 人生은 一生이라고 결론 지우려는 말이다(물론 속물인 본인이 내린)

설레임도 많았지만 두려움도 비례했던 지난날 이제와 생각하니 그건 태동의 시작이었나 보다.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했던 바보들의 불행(국제감각에 무頓), 눈에 비친 어설픈 낫섬이 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나의 두 눈동자속에 박힌 일본의 모습에 어찌나! 내 조국 배고항에 남겨둔 발자욱이 등을 돌린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누구랄 것 없이 따라 부르

며 눈시울을 적셨던 일, 조국의 꿈을 그리며 목
만 길게 뻗은 히로시마 원자핵 사망자 비에서 가
느다란 떨림의 술잔을 울리며 동포애를 확인 하
던 일, 30일이 워 그리 길다고 사랑하는 막내 아
들 귀국도 못 본채 눈을 감아 잠고 잠은 호텔방
한 구석에 켜 놓은 촛불이며 향 냄새에 가슴을
여밀던 8월1일,

아이야!

지금에서 생각하니 그게 산다는게 뭘지 였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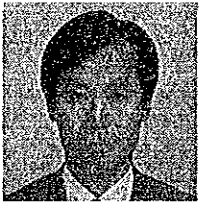
아이야!

30일 일본에서 자동차 크락손 소리를 몇번 들
었니? 일본기가 걸린건 몇번 보았니? 혹 가로
등이 켜는건 못 봤니? 파마미리 여인네는 몇명
보았니? 가격표가 붙지 않은 물건은 없었니? 영
수증을 삼켜버린 기계는 없었니? 술한 의문과
의문의 연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나의 무
지는 아직도 산다는게 뭘지도 모르는 맹물인가
보다.

아이야!

눈깜짝 한 순간에 일본을 안다는게 무리겠지?

● ● ● ● ● ● ● ● ● ● ● ● ● ● ● ●
10時 문화와 일본인과 절제



장 두석(張斗錫)

교원그룹

2次世界大戰後 敗戰의 쓰
라림을 안고서도 오늘날 世界

의 強大國이 된 日本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것이 日本을 訪問하
게 된 한 젊은 教師가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것이
였고,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東京에서 일주일 정도의 生活에
서는 곳곳에서 만나는 外國人들을 보고서 東京이
이제는 日本의 東京이 아니라 世界의 東京이구나
하는 아쉬움도 간직한 채 北海道로 떠났다.

北海道의 삿포로市에서는 마침 여름축제가 열
리고 있었다. 축제 첫날밤 豊平川広場에서 무려
1時間以上이나 폭죽을 신들린 것처럼 쏘아올리
며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을 보고서 日本의 經濟
的 力력을 실감하고 다음날 밤은 오도리公園을 찾
았다.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생맥주와 노래를 즐기고,
한편에서는 연인들이 정겨운 몸짓으로 축제를 만
끽하고 있는데 사라지는 분수대의 물줄기와 함께
상인들이 맥주를 팔지않는다가에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기분이 좋아질려고 하는데...', 에이 김
쌌다'는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大望의 Home stay
를 기대하며 北海道의 한 시골로 향했다.

Home stay 이틀째 밤, 마침 니카프町이란 지
역에 동료 넷이 떨어져 있었기에 Home stay 가
죽과 우리 넷이서 한집에 모여 술과 노래와 춤으
로 흥을 돋우고 돌구는데, 한 Home stay Host
가 이제 가자며 찬물을 끼얹는데 우연의 일치였
을까? 또 밤 10시였다.

짧은 日程을 서로가 붉어지는 눈시울로 아쉬워
하며 北海道에 情을 남겨둔 채 또 東京으로 오니
日本青年과 合宿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같은 敎員이라 첫날부터 서로가 쉽게
친해져 合宿 마지막날 밤에는 잔치가 벌어져 여
기가 日本인지, 韓國인지 분간조차 어려울만큼
흥이 났는데 日本青年 司會者가 公式日程을 마쳐
졌단다. 아~, 또 10시였다. 그 時刻이

이제는 그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찾고자 했던 것을 찾았다. 東京에서는 한 평이라
도 地上屋을 가지면 財閥이러는데 東京 한가운데
있는 明治神宮 주위에 거대한 숲이 存在하는 이
유를, 그러면서도 오늘날 日本이 世界의 經濟大
國으로 急成長하게 된 이유를

그것은 밤 10時 文化였다. 이들은 10시를 通해
서 일본혼을 키웠고, 그리고 節制가 무엇인지,
참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했으며, 그 忍
耐를 다음날 새로운 엄청난 힘으로 再生시켰던

것이였다. 또한 이들은 밤 10시까지 젊음을 만끽해야 했기에 주어진 限定된 時間內 모든 에너지를 最大로 發散시키는 것을 통해서 每事에 最善을 다하고 다해 天下第一主義를 자연스럽게 習慣化시켜왔던 것이였다. 이러한 개개인의 힘을 모으고 모아 오늘날 世界의 經濟大國으로 이끈 이들의 節制力에 놀라움을 禁할 수 없었다.

끝으로 한 가지 附言하고 싶은 것은 히로시마 平和記念公園과 資料館을 둘러 보면서 이제 日本은 지금까지 잘 사는 日本을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의 힘을 축적시킨 것에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커진 日本의 힘을 日本國家가 스스로 節制할 수 있을 때 日本의 平和는 물론 世界人類平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감상문



배 성자(裨 成子)

청년지도자그룹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부푼 가슴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7월 11일 별을 뒤로 한채 김포 공항을 향해 집을 나서 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에 도착하니 폭우가 쏟아졌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심한 폭우에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을 안고 새관을 통과하여 JAL 954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안개에 쌓인 하늘을 날았다.

2시간후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東京 나라따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의 시가지를 비스로 달리면서 가로수의 부성함에 나라의 부강함을 느꼈고 들뜬 마음과 어리둥절한 채로 동경의 하루를 보내고 공동프로그램으로 일본의 근, 현대사를 보고 듣고 지금의 일본이 있기까지는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했다는 것을 느꼈다. 공동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룹별 프로그램으로 접어들었다. 영산 후지산의 정상을 눈앞에 보며 합숙세미나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보다도 개인과 개인의 사이는 국경을 넘어서 너무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일본으로 출발하기전의 나의 선입견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으며 그들이 나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바닷함을 느꼈다. 그 후 지방문화 시찰 프로그램중에서 시마네현 각 지역의 산림육성, 유물보존박물관, 재활센터, 농어촌의 기계화등 여러가지 문물을 견학하면서 지방자치체 실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3박 4일의 홈스테이 일정에 들어가기전 하루하루는 두려움에 밤잠을 쫓기도 하였다.

그런데 박상 가정에 도착하여 손짓 몸짓 눈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반응으로써 온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친인척처럼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한국시골의 정감과 일본 농촌의 인정이 너무나 일치하였고 그들의 진심어린 인간본연의 모습을 보았다.

다양한 일본의 청소년 문화시설 견학, 청년과의 만남의 대화시간이 일정속에 좀 더 들어 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21세기의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일원인 나는 이번 우정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 우리나라 청소년 지도육성과 민간적 국제교류, 생애학습과 사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 국력신장과 건전한 인간관계, 창의력 개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21세기의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할 것을 다짐해 본다.

끝으로 일본국 외무성 산하 JICA 국민회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상문



김 승 운 (金 承潤)

청년지도자그룹

JICA가 마련한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의 일환으로 참가했던 우리들의 한달간의

일본생활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불꽃놀이(花火)와도 같이 짧은 순간의 밀도 있는 추억들을 간직한 채 사그라지고 있다.

서울에서의 예비모임 때 한국말을 정그렇게 잘 하는 코디네이터들과의 만남에서부터 그리고 도쿄에서의 첫날밤 침대위에 놓여 있는 일본식 잠옷(유카타)을 어설프게 걸쳐 보면서 부터 우리는 일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수많은 일본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과 접촉하는 한 달을 시작하였다.

도쿄에서의 다소 지루했던 오리엔테이션과 튜팁이 이루어진 시내구경, 후지산이 바라다 보이는 호텔에서의 일본 청년들과의 합숙세미나, 유서깊은 호반의 도시 시마네현(島根県)에서의 지방청년들과의 히심탄회한 만남, 근처 절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합류하여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손잡고 즐겼던 일, 3박4일간의 홈스테이에서의 생생한 일본가정생활의 체험, 또 히로시마, 교토, 나라등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

고, 배우고, 느꼈다. 일본을 배우고 한국을 배우고 세계를 배웠으며 인간들 사이에 깔려 있는 평화의 열망을 배웠다. 이러한 만남들은 어느 전통 다도의 집 안주인의 말처럼 단 한번밖에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만남들이었다. 이제 우리의 일정은 끝났고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 늘어난 짐들로 우리의 가방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머리속도 수많은 기억들로 가득차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룩해 놓은 일본사람들의 문화일까, 친절할 환대일까,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적인 부와 그 이면의 정신일까, 3박4일간의 만남이 아쉬워 눈시울을 붉히던 민박집 주인들의 다정함일까,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먼나라의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함에 대한 한탄일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서 단 10분도 채 배우지 못했다는 어느 대학생의 고백일까, 아니면 수없이 적어던 사진의 양일까, 장마후의 찌는 듯한 더위와 그 더위를 식혀주던 관광버스 안내양의 간드러진 연가(戀歌)가라일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담고 간다. 고국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기념품과도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많은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를.....

오오노 가즈히로(大野 勝弘)
도쿄도(東京都)·회사원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대할 수 있었던 무척 보람된 3일간 이었다.

한국에는 금년(1989년) 5월에 혼자서 5일간을 여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젊은이들과 오랜시간동안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과 같이 침식을 함께하면서 스포츠 교류도 하고 생활을 한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의 양식이 되었다. 또한 함께 술을 주고 받는 속에서 그 웃음면 얼굴에선 전혀 이국의 사람이라고 느낄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다.

이번 합숙의 프로그램속에는 그룹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속에서 가장 인상깊이 남아 있는 것은 윤대식씨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태평양전쟁때 아버지계선 일본으로 강제 징병된 후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채 행방불명이라고 했다. 그러한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본을 미워하며 어떻게 하면 일본에 양갓음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일본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정보도 많이 수집하여 공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본인과 직접교류를 하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호를 다지면서 보다더 깊은 교류를 하고싶다는 생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인 전체에게 있어서도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기쁜일이다. 한일간에 역사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과거로 인해 양국민은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어 그것에 얽매이어 우호적으로 이끌어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쟁당시의 사실들은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으니 일본인이 사과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한국인과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서로간에 단혀진 마음의 벽을 계속하여 가지지 않도록 이 기회에 한일양국의 젊은이가 되도록 많이 참석해야 하겠다.

또한,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본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음의 창을 열고있는 솔직하고 착실한 사람들이었다. 일본인은 그러한 것을 창피해 하거나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일본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근대화 되어 풍족하게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마스한 정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스한 사랑마저 잊어버리고 있다고 느꼈다. 일본을 앞질러 가려는 그 정신이 한국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일본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경제발전은 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속에서 대화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국제교류는 인간교류

가자마키 다케시(風巻 猛)
도쿄도(東京都)·회사원

이 합숙에 참가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 그 합

숙의 의미는 단순한 국제교류라는 너무나도 추상적 이미지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해서 느꼈던 것은 국제교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교류 다시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연장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나와 같이 그룹토론을 한 5명의 청년은 4H클럽의 농업청년들이었다.

나와 같은 회사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사고방식도 아주 비슷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일본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서 자기자신도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한 그들의 자세에 이끌려서인지 그들과는 본심으로 이야기를 하며 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토론했으며 훌륭한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함께 노래하며 춤추고 술을 마시는 가운데 언어 장벽을 넘어 정을 나누었다. 좋은 공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지낼 수 있던 2박3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한가지 뜻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농촌청년이 일본에 오기 전에는 가정의 역사적인 사정(불행한 한일합병) 때문에 반일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여러 일본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져 갔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반일사상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현혈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접촉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면에서는 서툰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려고 마음 먹었다.

4H클럽의 여러분들과의 토론은 나에게 있어서

진실한 인간교류를 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느끼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 있었다!

스즈키 마유미(鈴木 真由美)

가나가와(神奈川)県·회사원

또 하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을 얻었습니다.

합숙세미나에 참석하여 느꼈던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을까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제한이 없었더라면 토론이 한없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시간속에서도 나는 여러가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분들의 적극성과 정열, 그리고 밝은 모습들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책에는 많은 필담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외우려하는 한국인의 자세와 노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 자신이 미국에서 민박했을 때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만, 배우겠다는 의욕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양해 버리고 그다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보다도 적극적으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의 31명중에는 나의 친구와 또 아는 사람과도 너무나 닮으신 분도 계셨기에 일본과 한국 모든것이 거의 같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전반적인 성격이나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회사의 제도등.....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합숙세미나가 행해졌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국제교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외국인들과 문화를 수없이 접함으로써 자신의 나

라“일본”을 재인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활기찬 눈동자가 빛나고 있을 때

다나카 미치코(田中 美知子)

미야기(宮城)県·회사원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합숙세미나를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내가 이상하게도 지금은 “참석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라는 만족감으로 충만해 있다.

연수에 참가하게 되어 “한국의 참모습”이라는 한편의 책을 받았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공포심이 생겨났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뿌리깊은 반일감정이 남아있다고 한다. 모든 생활양식과 문화도 너무나 다르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접하면 좋을지 불안으로 가득찬 마음이었다.

센다이(仙台)를 출발하여 약 5시간후 연수센터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국청년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나에게 인사를 해 왔다. “아니예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 나는 한국청년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았다. 나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청년은 실로 정열적이고 성실하며 근면하다. 무슨 일이든지 진지한 태도로써 대하는 모습이 나를 감동케 했고 반성하게끔 했다. “도대체 나는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일을 한적이 있었는지” 나도 한국의 청년같이 빛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박3일의 합숙생활을 통해서 몇명의 친구를 사귄 수가 있었다. 한국청년과 대하는 동안에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가 있었다. 언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국경이라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내 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국과의 역사적인 사실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



한일청년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다

시 한번 그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회사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나에게 있어서 일본속의 국경이 되어버린 [센다이(仙台)와 도쿄(東京)]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도 커다란 수확이었다.

지금 나의 머리속에 한국인 일본인이라고 구별할 관념은 없다. 모두가 형제이다. 훌륭한 “우정의 씨앗”을 안고 고향인 仙台로 돌아갈 수 있겠다. 앞으로는 소중히 키워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국의 다리로서 성취해 보고 싶은 역할

이카이 마사히사(伊海 政尚)

도쿄도(東京都)·학생

「눈깜짝할 사이에」라는 말은 이 세미나를 위해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역시 한국과 일본은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세미나 당일 로비에서 나는 많은 타인들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껴버려 4일간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분독 떠올랐다. 그러나 성의만 있으면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통감했다. 정말 귀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 내 머리 속에는 선명히 한국학생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들의 얼굴로서 떠오른다. 그리고 우리들은 양국의 정감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자기자신을 적극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설령 주위에 상처를 입힐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충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교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2월부터 노력해 주신 세미나 스태프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합숙세미나를 끝내고

고토 아키쓰(後藤 秋津)

도쿄도(東京都)·학생

처음으로 한국의 참가자들과 만났을 때 이런 형편없는 영어실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만큼 서로의 영어회화는 서툴렀다.

그리고 또한 첫대면이 시작된 날 부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통치를 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왔다. 이때처럼 양국의 불행했던 역사의 중압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역시 아직까지 한국인 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역사, 아니 잊어서 안될 역사라고 생각한다. 것처럼 크나큰 마음의 장벽이 있었고 또한 언어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4일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무척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세미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한 걱정은 점점 사라져갔다. 큰 장벽이 있었지만 처음 느낀 그러한 공포감은 없어지게 되었다.

불행했던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차원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4일동안의 만남속에 얻은 것을 토대로 양국의 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우리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다. 현재의 일본사회를 생각해 볼 때 한국분들 앞에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을 것 같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기에 서로의 장래를 위해서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나가기를 마음 속으로 빌고 있다.

한·일 젊은세대가 만든 세미나

사사키 요코(佐々木 容子)

도쿄도(東京都)·학생

내가「한국·일본학생 합숙세미나」의 리더(leader)로 지명했을 때 머리속에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일본)와의 역사의 중압감이었다. 동시에 「가깝고도 먼 한국」을 알리고 했던 강한 호기심도 있었다.

불안과 기대속에서 진행되었던 세미나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이 앞섰다. 한국, 특히 일제시대에 대한 불행한 역사를 책이나 비디오로서 배우고 있는 한국학생들이 어느정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 줄지 걱정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그러한 근심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언어소통은 잘 안되었지만 미소와 몸짓으로 머리를 끄떡이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사사키씨는 눈이 크군요. 저의 눈은 단추구멍만큼이나 크다고들 하지요」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들은 마음껏 웃었다. 이러한 신선한 느낌을 주는 웃음은 참으로 오래간 만이었다.

세미나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분들은 친구로서 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었다. 일본측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의 세미나가 되기 쉬운 법이지만 이번 세미나는 한국측에서 미리 받은 토

문제목으로서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해 보였다. 그리고 한국학생 측에서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강강수월레춤을 일본학생과 같이 추자는 제안도 있었다. 공간을 만들기위해 책상을 운반할 때도 칸막이를 옮길때도 즉시 협력해 주었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일 세미나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느낀다.

패전날인 8월 15일이 다가올 때에

어머님은 신문을 보시면서 「또 전쟁에 관한 프로그램이나?」고 물으셨다. 8월에는 태평양전쟁에 관한 방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쇼와(昭和)시대로 부터 헤이세이(平成)시대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우리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그러한 불행한 역사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양국의 젊은 세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마당에서 개인과 개인이 인간적으로 서로 만나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는 이런 점들을 통감할 수가 있었다.

합숙세미나를 끝내고

나카지마 데루유키(中島 輝行)

도쿄도(東京都)·학생

일본과 한국-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로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이기는 하나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언어소통때문에 걱정을 했다. 일본인은 한국어를 말할 수 없고 한국인도 일본어를 할 수 없었다. 더불어 영어조차도 서로간에 불충분했다.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우정이 싹틀 수 있을까?

그러나 필요없는 걱정을 한 것임을 곧 알았다. 서로간의 마음만 통하면 언어는 문제가 안된다-



레크리에이션

라는 말을 흔히 하지마는 나는 믿지 않았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100%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언어소통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일깨워 주었다. 몸짓으로 통한 마음, 노래, 미소면 얼굴 등 언어이외의 의사소통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말하는 한국을 일본인의 마음속에서 그 의식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인식을 30명이 아니라 1억2천만 일본인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득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30이라는 숫자를 지나지 않고서는 1억2천만이라는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Hand in Hand의 감격을 언제까지나

야마다 요시코(山田 淑子)

도쿄도(東京都)·학생

「국제교류」를 생각할 때에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언어, 문화, 종교등의 차이점에서 오는 두꺼운 벽이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디.



즐거운 대화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느낀 것은 처음에 장벽이 있고 그것을 넘는 것이 국제 교류가 아니라, 진심으로 알리고 싶은 것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국제 교류이며, 그것은 개인 차원의 대화속에서 만들 수 있는 것임을 통감했습니다.

한국학생과 대화를 하는 속에서 느낀 것은 개인의 의견이란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외국사람과 이야기 할 때 자기는 일본의 의견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계기가 되어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내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분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같은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교류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도 무척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밤의 교류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불렀던 「Hand in Hand」 그 때 잡은 손과 손의 감촉을 일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열심히 우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까치」회

가모우 미노루(蒲生 実)

도쿄도 교원

올 여름(1989), 국제교류 서비스협회의 초청으로 가나가와(神奈川県) 후지노(藤野)에서 개최된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이라는 합숙세미나에 참가했다. 이 수년간에 한국을 열번이상이나 방문했으나 공적인 교류를 나누는 자리에 참가한 적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2박3일간의 합숙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한국의 선생님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수많은 스케줄이 진행되었는데 각 그룹으로 나뉘어 일본과 한국의 가정에서의 교육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정보교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두 나라사이의 가정문제 하나만을 보더라도 공통점도 있었지만 참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일본의 동료 네명이랑 한국을 여행하면서 이웃나라로서 이해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같이 까치」회 라는 모임을 만들어 11월에 「韓國四人展」을 마쳤다. 모임의 이름은 「같이」 「까치 : 한국의 國鳥」 즉, 「한국과 함께」라는 뜻이다.

밤에 합숙소에서 한국의 선생님과 술잔을 나누며 어깨동무하여 「두만강」을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 합숙소앞에 피어있던 도라지꽃과 한국의 안동에서 보았던 개나리꽃이 왠지 지금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후 한국의 선생님과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청주의 이 선생님은 지금 오사카에 계신다. 한국의 여러분, 협회의 시미즈(清水)씨 하시모토(橋本)씨! 안녕히 계십시오.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민박에서 체험한 국제교류

오기다 이키치카(大喜多 章親)
가가와(香川)県·공무원

저희집에서 민박을 한 분은 28세로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이상과 또 다른 한 분은 25세로서 장래는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스포츠맨인崔상입니다. 두분은 대단히 예의 바른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두분은 밤늦게 우리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밤 무엇보다도 놀란것은 나의 부모님의 관대하신 대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백과사전의 세계지도를 펴놓고 두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등, 어머니는 밤이 깊었는데도 과일과 맥주 그리고 야식까지 장만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신 저희가족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언어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들었던 것은 수험준비를 할 때 밤 늦은 시간에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할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분이 일상회화 정도의 영어는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영어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서투른 영어는 그분들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가지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조쿠(家族)를「가족」이라고 말하며 고엔(公園)을「공원」이라고 말하는 등 일본어와 비슷한 발음이 많다는 것에 세삼 놀랐습니다.

민박날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모두 함께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시냇가에서 반딧불을 발견했을 때 유카타차림의 두분은 부채를 손에 들고 몇마리의 반딧불을 쫓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앞뜰에서 불꽃놀이를 하며 3일간의 민박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두분은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분에게 앞으로 한국에 세계각국의 학생이나 청년들이 방문할 때는 저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세계각국의 청년들에게 배풀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두분은「물론이지요」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香川 県을 떠나셨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웠던 3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생활체험이 다른 두분과 같이 지냄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환영리선선때 모두함께 불렀던 노래가 이웃나라 방송국에서 흘러나와 다시 한번 즐거웠던 그때가 되살아납니다.

1989년의 여름방학

나가오 후미코(長尾 史子)
가가와(香川)県·교원

이번 여름, 동생이 둘 새로 생겼다. 장선미와 김연주, 둘 다 스무살된 여학생이다.

밤에 내방에서 이불을 펴놓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갔다.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선미는 언

니와 꼭 닮았네” “할머니께서는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는데”하고 말한다. 선미가 남자친구의 사진을 내밀며 살짝 이름을 가르쳐 준다. 연주가 “워니”하면서 묻는다. “말하면 안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즐거운 대화가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줄리는 눈을 비벼가면서까지 누구 한사람 그만두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나홀동안 침식을 같이 했다.

삼일째 되는 날은 해수욕장을 찾았다. 연주는 수영이 좋았던지 혼자서 계속 수영을 즐기고 있다. 선미는 튜브에 몸을 맡기고 한가로이……. 활짝 개인 날씨가 두사람의 시간을 한층 더 즐겁게 해 주었다. 한국에서도 가끔씩 바다를 찾아가는가 보나.

가족들도 무척 즐거워 보인다. 좀처럼 함께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우리 네가족이 빈박을 하는 동안은 즐곤 함께 하였다.

이하는 나보다도 더 즐거워 보이셨던 어머니의 감상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항공우편이 왔다.

I was proud of my home stay to my family and my friend. I think I and Seon mi are lucky girls and I thank you and your family again ...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그들의 빈박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족은 상당히 틀떠 있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집에 외국에서 손님이 와요”라고 말했다.

“또 하나 행복이 찾아와요”라고 하는 기분으로 마음속은 충만했다. 기대했던대로 예쁘고 겸손하며 솔직한 학생들이었다. 요리솜씨가 서툰 나도 오래간만에 「스시」를 만들어 불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모두함께 만들어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불꽃놀이도 즐겼다. 교내밖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남편의 영어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마중에서 전송까지 그 한 주일간은 손님을 위한 날.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마음을 더한층 가깝게 해 주었다. 우리가족에게는 그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 귀여운 새와 같았다.



즐거운 추억과 꿈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하야시 히데아키(林 秀昭)

가가와(香川県)·교원

친애하는 한상, 홍상 안녕하십니까? 서로가 헤어진지도 어느새 일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은 두분의 밝으신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지냈던 즐거운 추억을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바다건너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지만 마음은 온통 대한민국의 생각뿐입니다.

두분과 함께 보내었던 날들이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극히 짧은 순간이었습시다만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은 날들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지울 수 없는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때문일까요?

“빈박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이 짧은 대화에서 시작된 서로간의 단남이 모든것을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진실로 저희들을 내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의바르고 인자한 두분의 인품을 대하고서 여러분의 가족과 조국의 훌륭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사람들이 잃어버린 인정이많은 행동에 실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말은 전연 할 수 없었고 영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수첩을 들고 몸짓으로 악전고투하는, 저희들을 성심껏 돌보아 주시며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던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괄량이이며 응석부리기인 개구장이 미키(美樹)와 요시키(義樹)를 귀여워 해주셨던 점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등에 업히고 어깨에 올라탈때도 있었지요. 더우신데도 바쁘신 계획속에서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싫으신 표정 한번 보이지 않고 받아 주셨지요. 어린이들은 정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형의 정을 잊지 못했는지 지금도 "한상, 홍상"이라고 이야기가 오고갑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의 꿈은 「가깝고도 가까운 친애하는 나라」대한민국을 몸소 느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여러분의 조국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피부로서 느끼고 배우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콤파트는 벌써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때는 義樹도 형이 되겠지요. 다음세대의 모든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과 함께 두분과 만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한국어로

마에가와 마사시(前川 昌司)
가가와(香川)県 · 공무원

한국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해왔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방문은 그들과 알게 되기까지는 태평양전쟁때의 강제징용등의 과거의 불행한 사건, 한국어 발음과 한글의 문자형태, 민족의 고유의상인 치마저고리의 독특한 디자인과 채색 등 지리적으로는 해협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이웃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던 한국관은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할 나라 라는 인상이 강했다.

그러나 환영리셉션에서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해왔던 陳상과 朴상과 지냈던 이들동안의 인상은 그들과 나는 인종학적으로도 비슷한 외형을 지닌 이상으로 내면적으로도 아무 다름이 없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내린 국민담게 예의와 예절을 중시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잃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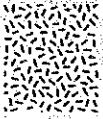
전차역에서의 이별

리고 있었던 소박함과 순박함을 지닌 것 같았다. 처음으로 외국인들을 모셨기때문에 실례되는 일이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분들은 항상 그때 그때 불편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웃어넘겨 주었다.

그분들은 나의 가족에 대해서 무척이나 호의적이었으며 모국에서 배운 익숙치 못한 일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내 동생이 陳상과 일·한양국의 자랑을 이야기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유쾌했었다. 한국어로 돌아간 후 朴상이 보내주신 담례편지가 외국인으로서의 부척 힘든 히라가나와 한자도 적혀있는 것을 보고 감격했었다.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이 타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

최근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동향이 국제문제로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나는 이번 교류를 통해서 국가의 우열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왜곡된 정보를 흥미분위로 들을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상호이해는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했다. 해수욕장을 찾았을땐 백사장에서 작년에 해외파견 연수로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배운 세파라다쿠로라는 球技놀이를 그들과 함께 했다. 결과는 우리들의 참패로 끝났지만 진실한 국제교류는 이러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했었다.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그분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때가 오면 반드시 한국말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만남

야마시타 도모요(山下 智代)

가가와(香川)県

하나의 만남이 이처럼 마음속 깊이 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989년 여름 "한국에서 대학생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민박을 시켜줄 수 없을까요"라는 한마디에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속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부모님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승락을 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나와 같은 생각으로 즉시 승락을 하셨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곤란한 표정을 하셨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 방이 없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 식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드디어는 아무런 상담도 없이 승낙을 했던 나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민박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어머니의 얼굴에선 더욱 곤혹스럽고 불안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장일을 핑계로 방청소조차도 하지 않았었다.

어머니과 나 사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지고 있었을 때 한국대학생들이 나카마쓰(高松)市에 도착하여 환영리셉션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날도 가지않겠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간곡히 사정하여 참석하시도록 했다.

우리 母女는 긴장하여 첫대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집에는 치마지고리를 입은 아주 예쁜 聖玉씨와 雲喜씨가 오게 되었다. 서투른 영어솜씨로 대화를 오고가던중 한국의 노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들의 밝은 미소, 암전한 행동이 우리가족의 불안을 씻게 해 주었다. 이날부터 어머

니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이틀후부터는 두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다.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3일간 어머니는 정말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집엔 딸이 넷 있어요. 윤희씨 성옥씨 그리고 도모요(智代=나), 미에(美枝)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한국에서 온 두사람의 어머니같이 보였다. 세토오하시(瀬戸大橋) 그루징 유람선의 선상에서 어떤 남자 한분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케요(酒よ)」라는 노래였다. 이 노래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소녀처럼 티없이 맑게 보였다.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으로 본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는 3일간을 계속해서 밥을 지어 주셨고 그 식사를 성옥씨와 윤희씨는 "참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요"라면서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과 어머니께서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는 그녀들은 아무리 권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작별파티를 하던날 어머니는 그녀들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환영리셉션이 있었던 날로부터 꼭 일주일이 흘렀다. 일주일간이 이처럼 어머니를 감격시킨 것은 그녀들의 명랑하고 솔직하며 암전한 예의때문이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는 그녀들과 마음이 통하고 있었다. 평생시 그다지 말씀이 적으신 아버지께서도 따뜻하게 감싸주셨다.

어머니는 1989년의 우리집 톱 뉴스를 민박이라고 칭하셨다. 그리고 얼굴을 상기시키면서 여름에는 꼭 서울에 가 봐야겠다고 말씀하신다.

성옥씨 윤희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적자료

1. 서울창구기관 (서울프로그램 실시기관)

대한민국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과

2. 서울프로그램 실시일정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3	월		개강식, 본사업 설명, JICA브리핑 그룹별프로그램의 설명(I), 그룹별 토의시간	서울
4	화	강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일본어학습(I)	한국가요연습(I), 일본가요연습(I),	"
5	수	강의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생활 일본어학습(II)	한국가요연습(II) 일본가요연습(II) 강의「한일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의 방향」, 환승리셉션, 그 룹별 토의시간	"
6	목	생활일본어학습(III) 과검자기본교육		"

3. 실시일정

①근로청년그룹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1	화	일본도착	생활가이던스		東京	
12	수	본계획의 브리핑	개강식 환영파티	일본어학습	인수단체의 프로그램소개	"
13	목	강의 「일본의 산업과 경제」	일본어학습	일본어 사롱		"
14	금	강의 「일본의 근·현대사」	일본영화감상	무도감상 및 교환회		"
15	토	합숙세미나 사전미팅	체험적 일본어학습			"
16	일	〈 자 주 연 수 〉			"	
17	일	横浜博 견학	일본어 사롱		"	
18	화	강의 「일본과 한국」	강의 「일본의 사회와 문화」		"	
19	수	浅草 견학	皇居주변 산책	労働省방문	"	
20	목	(도시근로청년)京王帝都若葉台공장 견학·교류, (농촌청년)埼玉県立 농업대학교방문 양관원·농산물공급센터·농협라이스센터 시찰			"	
21	금	합숙세미나 오리엔테이션	양국청년의견발표	그룹토론 스포츠교류	神奈川	
22	토	그룹토론	그룹토론	교류파티	"	
23	일	그룹토론 정리	폐회식	東京로 이동	東京	
24	월	〈 자 주 연 수 〉			"	
25	화	仙台로 이동	지방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宮城	
26	수	県庁방문 市役所방문 河北新報社 견학 東北대학전기통신연구소 견학	리셉션		"	
27	목	((도시근로청년)東北리코오 견학, (농촌청년)古川농업시험장 견장 견학)생선목공장견학			"	
28	금	〈 홈 스테 이 〉			"	
29	토	〈 홈 스테 이 〉			"	
30	일	〈 홈 스테 이 〉			"	
31	월	일본청년과의 교류(그룹토론·꽃꽂이등	실습·강의·저녁회)		"	
8/1	화	키링백주 仙台공장 견학	宮城蔵王인형관 견학	평가회	"	
2	수	〈 자 주 연 수 〉			한송파티	
3	목	広島로 이동	한국인위령비 참배·평화기념공원·원복자료관 견학		広島	
4	금	徳島로 이동	阿波十郎兵衛저택·鳴戸공원 견학	阿波춤 체험	徳島	
5	토	京都로 이동	清水寺·교대友禪苑 견학	기온코너	京都	
6	일	奈良 견학(국립박물관·東大寺·春日大社·法隆寺)			"	
7	월	〈 자 주 연 수 〉			東京로 이동	
8	화	〈 귀 국 준 비 〉			"	
9	수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회		한송회	"	
10	목	귀국			"	

② 학생그룹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1	화	일본도착	생활가이던스		東京		
12	수	본계획의 브리핑	개강식	환영파리	일본어학습	인수단체의 프로그램 소개	"
13	목	강의 「일본의 산업과 경제」		일본어학습		일본어사롱	"
14	금	강의 「일본의 군·현대사」		일본영화감상		무도감상 및 교환회	"
15	토	합숙세미나 사전미팅		체험적 일본어학습			"
16	일			< 자 주 연 수 >			"
17	월	橫濱博 견학				일본어사롱	"
18	화	강의 「일본과 한국」		강의 「일본의 사회와 문화」			"
19	수	오리엔테이션 개강식		三그룹으로 각각 대학방문			"
20	목	東京증권거래소·深川江戸자료관·씨름박물관 견학		자주연수			"
21	금	山中湖로 이동	합숙세미나	오리엔테이션	분과회	전체토론	山梨
22	토	분과회		레크리에이션	분과회	자유토론	"
23	일	분과회		분과회 교류의 저녁	레크리에이션		"
24	월	富士山五合目산책		東京로 이동			東京
25	화	高松로 이동	지방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県개요		香川
26	수	瀬戸대교기념공원 견문		四国전력坂出발전소 견학	리셉션		"
27	목	香川제일중학교 방문		隆祥산업(주) 견학			"
28	금	森繁인테피아지구 견학		少林寺권법도장 견학	홍스데이		"
29	토	瀬戸内海크루징		公湖공원에서 기념식목			"
30	일			< 홈 스테 이 >			"
31	월	五色台소년자연의집 방문	瀬戸内海역사민속자료관 견학	香川대학농학부 방문			"
8/1	화	특별양호노인홈 방문	지사에방	県개요 설명	스포츠교류		"
2	수			< 가 주 연 수 >	환송파티		"
3	목	栗林공원 견학	広島로 이동	한국인위령비 참배	평화기념공원·원폭자료관 견학		広島
4	금	宮島 견학		京都로 이동			京都
5	토	東大寺 견학		法隆寺 견학			"
6	일	金閣寺·清水寺 견학		東映大秦영화촌 견학			"
7	월	東京로 이동					東京
8	화			< 귀 국 준 비 >			"
9	수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회		환송회		"
10	목	귀국					"

③교원그룹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1	화	일본도착	생활가이던스		東京		
12	수	본계획의 브리핑	개강식	환영파티	일본어학습	인수단체의 프로그램 소개	"
13	목	강의「일본의 산업과 경제」	일본어학습	일본어사롱		"	
14	금	강의「일본의 근·현대사」	일본영화감상	무도감상 및 교환회		"	
15	토	합숙세미나 사전미팅	체험적 일본어학습			"	
16	일	< 자 주 연 수 >			"		
17	월	横浜博 견학	일본어사롱		"		
18	화	강의「일본과 한국」	강의「일본의 사회와 문화」		"		
19	수	札幌로 이동	札幌東고등학교 방문		北海道		
20	목	平和유치원 방문	札幌山노手南소학교 방문	大倉山상채 견학		"	
21	금	시장 예방	도지사 예방	교육청 예방	교육사정 설명	리셉션	"
22	토	真駒内예술의술 견학	北海道개척기념관	札幌맥주공장	박물관 견학	"	
23	일	< 자 주 연 수 >			"		
24	월	道立특수교육센터 방문	日高로 이동	일본청년과의 교류회		"	
25	화	日京輕種馬공동육성센터 견학	홈스테이가족과의 주식대면식		"		
26	수	< 홈 스테 이 >			"		
27	목	< 홈 스테 이 >			환송파티	"	
28	금	東京로 이동			東京		
29	토	자주연수	相模湖로 이동	합숙세미나	저녁회	교류의밤	神奈川
30	일	기조강연 한국측 발표	분과회 보고회	저녁회	교류의밤	"	
31	월	스포츠대회	東京로 이동			東京	
8/1	화	< 자 주 연 수 >			"		
2	수	茶道체험	NHK방송센터 견학		"		
3	목	広島로 이동	한국인위령비 참배	평화기념공원	원폭자료관 견학	広島	
4	금	宮島 견학(厳島신사·弥山케이블카)	京都로 이동			京都	
5	토	古代友禪苑 견학	金閣寺·龍安寺·西陣會館 견학	기온코너		"	
6	일	法隆寺 견학	東大寺·국립奈良박물관 견학			"	
7	월	二条城 견학	東京로 이동			東京	
8	화	< 귀 국 준 비 >			"		
9	수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회	환송회		"	
10	목	귀국				"	

④ 청년지도자그룹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1	화	일본도착 생활가이던스			東京		
12	수	본계획의 브리핑	개강식	환영파티 일본어학습	인수단체의 프로그램 소개	"	
13	목	강의 「일본의 산업과 경제」		일본어학습	일본어사롱	"	
14	금	강의 「일본의 근·현대사」		일본영화감상	무도감상 및 교환회	"	
15	토	합숙세미나 사전미팅		체험적 일본어학습		"	
16	일	< 자 주 연 수 >			"		
17	월	橫濱博 견학		일본어사롱		"	
18	화	강의 「일본과 한국」		강의 「일본의 사회와 문화」		"	
19	수	강의 「청소년의 현상과 건전육성」		주식회 총무청 예방	강의 예능 감상	"	
20	목	분부성 방문	강의 「생애학습의 대책에 대해서」	皇居 주변산책	茶道체험 야구관전	"	
21	금	山梨로 이동	富士五合目산책	風穴·鵜沢水穴 견학	합숙세미나 교류의밤	山梨	
22	토	그룹토론		스포츠교류	캠프파이어	"	
23	일	東京로 이동		주식회	자주연수	東京	
24	월	< 자 주 연 수 >			松江로 이동	車中泊	
25	화	지방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시내견학(松江城·武家屋敷등)		島根	
26	수	선택 견학(원사력발전소 또는 수경재배·授産센터)			宍道湖유람 저녁회		"
27	목	부지사 예방	県개요 강의 「청소년육성문제」	청소년지도자과의 간담회	환영회	"	
28	금	吉田村 사찰(村役場 예방·절의 역사박물관·山内생활전승관 견학)			간담회		"
		芝原포도원 견학		湯村 온천		"	
29	토	국제포럼(개회식·강의 「양국의·언어·역사와 상례전망」·의견교환·교류회)				"	
30	일	島根와인아라 견학 出雲大社 견학 홈스테이(三지역으로 분산)				"	
31	월	(出雲市)시장 예방·시설견학·환영회		(大田市)농업지역시찰·茶道체험·시장예방		"	
		(仁摩町)漁協시설시찰·町長예방(大田·仁摩합동) 石山银山·芝尾기와공장·환영회				"	
8/1	화	< 홈 스테 이 >			"		
2	수	< 홈 스테 이 >			저녁회	"	
3	목	広島로 이동	한국인위령비 참배·평화기념공원·원폭자료관 견학		広島		
4	금	京都로 이동	金閣寺·古代友禪苑·清水寺 견학		京都		
5	토	奈良 견학(東大寺·春日大社·法隆寺)				"	
6	일	< 자 주 연 수 >			"		
7	월	東京로 이동				東京	
8	화	< 귀 국 준 비 >			"		
9	수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회		원송회	"	
10	목	귀국				"	

4. 초청 청년 명부

*이 름

*현 직

*연락처

*전화: 직장, 자택



박 병호(朴炳浩)
총단장
Park Byeong Ho
Head Supervisor
Ministry of Education
33-404 Hyun Dai Apt.
Karak-Dong Sonpa-Gu
Seoul Korea
400-4433 737-3324



홍 대영(洪大榮)
부단장
Hong Dae Young
University Education
Student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Na-202 Sin Woo Villa
1547-16 Seocho 3-Dong
Secho-Ku Seoul Korea
001-82-2- 001-82-2-
584-4071 737-3774



홍 갑기(洪甲基)
간사
Hong Kab Kee
Educational Researcher
Student Guidance
Ministry of Education
803-507 Civil Servant
Apt. Kodokdong
Kangdong-Gu
Seoul Korea
470-1144 720-3046



이 태익(李泰翊)
간사
Lee Tae Ik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Wormens/
Jurenile Labor
Ministry of Labor
68-12 Sadang-Dong
Dongjag-Gu Seoul
150-090 Korea
(02) 536-9352 (02)503-9746

勤勞青年



윤 병성(尹炳成)
반장
Yoon Byung Sung
Asst Manager
Aerospace Division
Korean Air
Ja-303 Kal Apt. Nae-
Dong Kimhae-City
Gyung-Nam Korea
(0525)33-9215 (051)98-1531
(Ext. 2235, 5272)



한 애순(韓愛順)
Han Ae Soon
Employee
Affairs Dept.
Dae Duck Electronics
Co. Ltd.
943-13 Wonkok-Dong
Ansan-City Kyunggi-Do
Korea
(0452) 33-2256
(0345) 491-2791



전 선희(全仙姬)
Jeon Seon Hi
Farmer
60 Dosin-Ri Shiseo-
Myon Yeunchun-Gun
Gyeonggi-Do Korea
(486-830)
(0355-34-8387)



강 인실(姜仁實)
Kang In Sil
Farmer
180 Dukdae-Ri Gunbuk-Myon Haman-Gun Gyeongnam-Do Korea (638-820)
0552-82-5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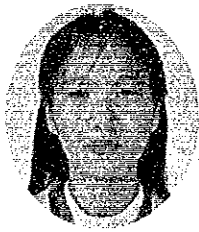
김 순화(金順和)
Kim Soon Whoa
Farmer
Wooyong-Ri Doonhae-Myo Whoengsung-Gun Kangwon-Do Korea (225-830)
(0372)42-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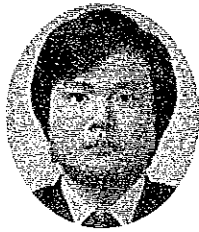
이 수경(李洙鏡)
Lee Soo Kyung
Dept. of Dyeing Processing
Jeilhabseom Co
705-21 Bung Deog 1-Dong Nam-Gu Daegu-City Korea (053) 626-2027
(053)82-1511-5
451-6



박 경애(朴敬愛)
Park Kyoung Ae
Administrative Staff
General Services Division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1-1556 Pukahyun-Dong Seodaemun-Ku Seoul Korea
(02) 312-9814 (02) 503-7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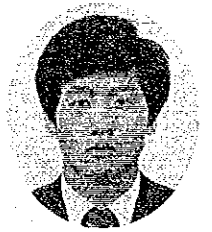
서 경옥(徐庚玉)
Suh Kyung Ok
Cosmetic Inspector
Division II Ploc Production
Dept. Anam Industrial Co. Ltd.
50-3 Kyelim-3 Dong Dong-Gu Kwangju-City Korea
062-223-6528 (032)653-5101
(032) 662-3289 -3
3610



안 승덕(安承德)
An Sung Duk
Print
Printing
Korean Labor Welfare Corporation
95-1-Dong Ansan-City Kyunggi-Do Korea
(042)73-1043 (0345) 83-5582



배 상돈(裵相敦)
Bae Sang Don
Administrative Staff
Dept. of Accounting & Financing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102 Ho Han But Billa Gal Ma Dong
Seo-Gu Daejon Korea
(042)522-3407 (042)861-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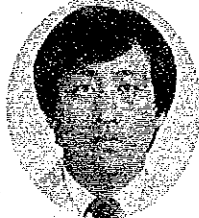
홍 광선(洪光先)
Hong Kwang Sun
Farmer
482-3 Gijuk Dong Kwang San-Gu Kwangju-City Korea (506-505)
0623 941-3858



황 인수(黃仁秀)
Hwang In Soo
Assistant Chief
Advancement & Operation Dept.
Korea Science Foundation
Mokdong Apt. 1418-202 Shinjeong-Dong Yangcheon-Gu Seoul Korea
645-4509 555-083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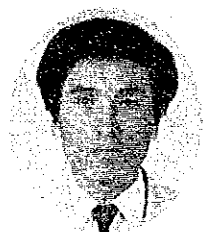
현 재규(玄在圭)
Hyoun Jae Kew
Teacher
Choung-Chung-Nam Do The Board of Education
Gae-Hwa Elementary School
817-3 Dong-Dae-Dong Dae-Chun City Choung Chung Nam Do Kore (355-140)
(0452)32-6440 (0452)33-5141



김 동권(金東權)
Kim Dong Kyeun
Farmer
161 Gakkye-Ri Simchun-Myon Yeongdog-Kun Chongbuk-Do Korea (370-850)
(0414)42-7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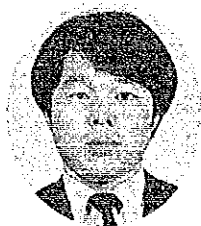
김 명훈(金明勳)
Kim Myung Hoon
Farmer
840 Shinhyo-Dong Seogyupo Cheju-Do Korea (697-040)
(064) 67-0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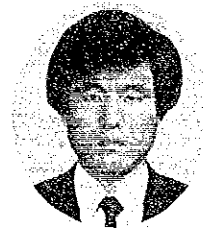
김 원회(金原會)
Kim Won Hoe
Automation Design
Faculty Dept.
Industrial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
Daewoo House Ga-Dong
101 513-17 Shinwol-Dong
Yang Chon-Ku Seoul
Korea
(02) 697-7120 (02)8601-686



이 철선(李哲仙)
Lee Chul Son
Administrative Staff
Dept. of Student Affairs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501-209 Jugong-Apt
Nae-Dong Seo-Gu Daejon
Korea
(042)45-5759 (042)861-1234



이 경희(李敬熙)
Lee Kyung Hi
Meteorologist
Climatic Division of Kwangju
Korea Meteorological
Service
7/4 29-16 Seo 2 Dong
Kwangju-City Korea
(062)66-1756 (062)672-7365



이 태호(李泰鎬)
Lee Tee Ho
The Personnel
The General Affairs Dep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44-3 Kamsam-Dong
Dalsu-Gun Daegu Korea
954-3008 420-3316



이 용범(李鎔範)
Lee Yong Bun
Assistant Director
Dept. of Directing Dispute
Federation of Korea
Textile Workers Union
319-5 Naison 1 Dong
Eui-Wang-City
Kyoung-Gi-Do Korea
(0343)58-6318
(02) 337-3111-3



박 원배(朴元培)
Park Won Bae
Farmer
362-8 Chung Dang
Cheonam-City
Chungnam-Do Korea
330-370
(0417) 565-1836



심 성보(沈成輔)
Shim Sung Bo
Assistance Secretary
Bureau of General Affair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180-79 Bong Chun 11 Dong
Kwanak-Ku Seoul Korea
(02) 883-5988 (02) 780-6009
782-3884
-7



신 명훈(申明勳)
Shin Myung Hoon
Engineer
Engine Production Dept.
Daewoo Heavy Co. Ltd.
278-74 Hwasu-1 Dong
Dong-Ku Incheon-City
Korea
(032) 762-3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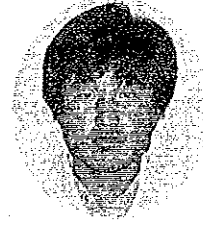
심 언보(沈彦普)
Sim Eon Bo
Employee
2 Production Dept.
Co. Jong Geun Dang
306-14 Koang Myeong
Dong Koang Myeong
Kyunggi-Do Korea
613-1742 677-6815 605
3841



양 호열(梁鎬烈)
Yang Ho Yul
Technical Engineer
Dept. of Research &
Management
The National Science Museum
22/4 21-13 Gu-San Dong
Eun-Pyong-Gu Seoul
Korea (122-060)
02-386-9804 02-762-5205
5209



에 인수(芮仁洙)
Ye In Soo
Jigs & Fixtures Design
Faculty Dept.
Industrial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
Kugkyung Apt 307, 73-2
Kaeon-Dong, Nam-Ku
Pucheon-City
Kyungki-Do Korea
(032) 667-5083 (02) 841-054(4)
47,48



유 영록(柳漢綠)
Yoo Young Log
Farmer
285 Dukjung-Ri
Kochang-Eub Kochang-Gu
Chunbuk-Do Korea
(585-800)
(0677) 62-1246



윤 원식(尹元植)
Yoon Won Sik
Teacher
Kang-Won Do The Board
of Education
Oh-Mi Elementary School
236-4 3 Ban Oh Miri
Bang-San Myun Yang-Gu
Goon Kang-Won Do Korea
(255-830)
(0361) 3-6948
(0364) 481-5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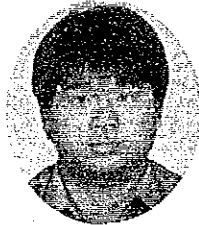


윤 대식(尹大植)
Youn Dae Sik
Farmer
806-Young Bok-Ri Chil
Yang-Myon Kangjin-Gun
Chungnam-Do Korea
001-82-0638-327810
062-33-0151



윤 영철(尹永喆)
Youn Young Cheol
427-1 Ineoi-Dong Kumi-
City Gyeong Buk Do
Korea
0546-462-7096
0546-52-2570

学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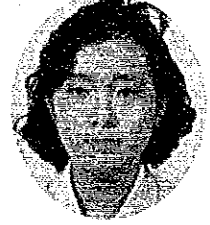
유 철수(劉哲受)
반장
Yoo Chul Soo
Student
Dept. of Agriculture
Cheju National Univ.
1314-29 Hanlimri
Hanlimup Pukchejukun
Cheju-Do Korea (695-830)
001-82-64 001-82-64
96-4001 23-6141 (505)



홍 미선(洪美善)
Hong Mi Sun
Student
Computer Science
Kyonggi University
19-44 Oryudong Gurogu
Seoul Korea
001-82-2
612-7129



황 운희(黃云喜)
Hwang Woon Hee
Student
Computer Science
Sogang University
445-15 Galhyun-Dong
Eunpyung-Gu
Seoul Korea
(02) 359-1957



장 선미(張善美)
Jang Sun Mi
Student
Mathematics
Sookmyung Womens Univ.
Seoknam-Dong 559-
Beonji Kyeongin Apt.
B-Dong 503-Ho Seo-Ku
Incheon Korea
(404-222)
(032)862-9896



강 윤정(姜允晶)
Kang Yun Jung
Student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Hy-Osung Womens Univ.
164-19 Daehyum-1 Dong
Buk-Gu Daegu 702-041
Korea
(053)92-4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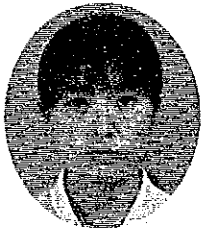
김 연주(金妍珠)
Kim Yeon Joo
Student
Computer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yang Apt. 2-308
Songpadong Songpogu
Seoul Korea
(02) 418-8277



권 성옥(權聖玉)
Kwon Seong Ok
Student
Home Economics
Sangmyung Womens Univ.
Hannam Apt 201 467-24
Anyang 6 Dong Anyang-
City Kyung-Gi Do Korea
0343-48-1723



이 은주(李恩柱)
Lee Eun Joo
Student
Dept. of Pharmacy
Major in Pharmacy
Kangweon National Univ.
30-2 Ungyo-Dong
Chuncheon-City
Kang Weon Province
(0361) 3-4406



이 미숙(李美淑)
Lee Mi Suk
Student
Physic
Kyunsung University
Si Young Apt. 23-205
Geosong Dong Haeundae-
Gu Pusan Seoul Korea
(051) 624-9827
(051) 72-8534



오 현정(吳賢貞)
Oh Hyun Jung
Student
Biology
Sungshim Womens Univ.
96 Anam-Dong 2nd St.
Sung Book-Ku
Seoul Korea (136-072)
(02) 741-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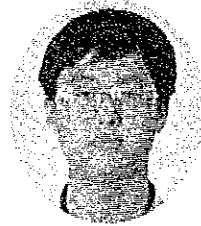
박 지혜(朴志慧)
Park Ji Hye
Student
Home Economics
Duk Sung Womens Univ.
91-2 Samjungdong Song
Pa Gu Seoul Korea
(02) 414-2479



조 중배(趙中培)
Cho Joong Bae
Student
Dept. of Horticulture
Breeding
Mokpo National Univ.
962-27 Yong Dang I
Dong Mokpo Korea
(0631)-73-5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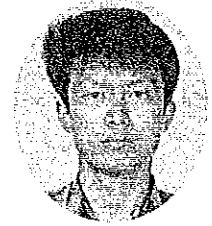
최 성기(崔聖基)
Choi Sung Gi
Student
Architecture
Mokwon Methodist
College
#277-5 Yongmoon-Dong
So-Gu Taejon Korea
001-82-42
45-5658



고 석두(高錫杜)
Go Seok Du
Student
Pharmacy
Jeonju Woosuk Univ.
112-3 Seoseohakdong
Jeon Ju-City Jeon Buk
Korea
(0652)83-4170



한 철수(韓哲洙)
Han Cheo Iosu
Student
Dept. of Physics
Myong Ji University
660 Bunjijunha2-Dong
Ulsan-City
Kyongsangnam-Do
(0522)34-8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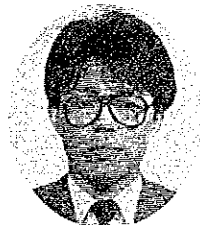
홍 준기(洪俊基)
Hong June Ki
Student
Dept. of Physics
Ajou University
519-22 Cheolsan3-Dong
Kwangmyung Kyongki-Do
Korea
(02) 682-2548 (02) 544-5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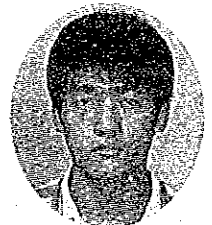
진 성수(陳聖秀)
Jin Seong Su
Student
Electronic Engineering
Cheong Ju University
Chung Buk Cheong
Woncounty Buk Il Myeon
Gu Seong Li 331
50-1191 54-2111



강 장훈(姜長勳)
Kang Jang Hoon
Student
Chemical Engineering
Soong Sil University
646-182 Shin-Lim 3 Dong
Kwan-Ack Gu Seoul
Korea
(02) 855-6000



김 은일(金殷鎰)
Kim Eun Il
Student
Metal Eng.
Kuk Min University
458 Yuklyong-Ri Gumwang
Eup Eumsung-Gun
Chung Buk-Do
(0443) 78-1016



김 수희(金樹熙)
Kim Soo Hee
Student
Electronics
Ulsan University
Ulgu-Gun Onyang-Myeong
Daean-Lik 478 Bunji
Kyeong Nam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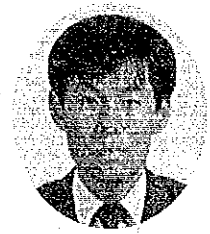
권 경순(權慶純)
Kwon Kyeong Soon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
Kwan Dong Univ.
1011-2 Bo-Kwang 1-1
Sung-San Myeong Myeong-
Joo Kun Kang-Won Do
Korea
42-9628



이 경재(李慶載)
Lee Gyoung Jai
Student
Mechanicals Engineering
Hong Ik University
43-10 Jun Nong 3 Dong
Dong Dae Moon Ku
Seoul



이 재철(李在喆)
Lee Jae Cheol
Student
Physics
Chung Buk Univ.
662-19 11-2 Naedeok
Dong Cheongju-City
Chung Buk Univ.
(0431) 52-8066



최 명진(崔明鎭)
Choi Myeoung Jin
Student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Han Nam University
300-100 117-17
Jayangdong Dong-Gu
Daejeon Korea
(042-73-2591)



오 진영(吳鎭泳)
Oh Jin Young
Student
Jeon Ju Univ. Physics
Jeon Ju University
753-86 WooA3 Dong
Jeon Ju-City Jeon Buk
Korea
(0652)4-5649



박 민 (朴珉圭)
Park Min Gyu
Student
Dept. of Agronom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801 Sajeong-Ri Beubsu
Myon Haman-Gun Gyeong
Nam Korea (637-830)
(0552) 82-3701 (0592) 54-
82-4253 9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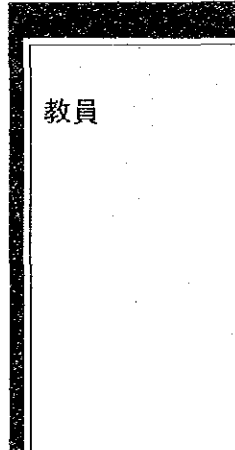
노 진호(盧辰鎬)
Ro Jin Ho
Student
Dept. of Physics
Incheon University
#317-9 Mja 8 Dong
Dobong-Gu Seoul Korea
(02) 981-1452



신 종모(辛宗謨)
Shin Jong Mo
Student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Kyungwon Univ.
36-25 Dabsibri-2 Dong
Dongdaemun-Gu Seoul
(02) 245-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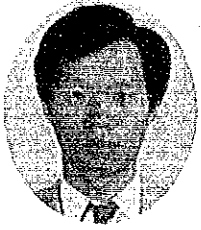
양 기태(梁基太)
Yang Gi Tae
Student
Dept. of Biology
Donggwi University
13 Dongdaeshin-1 Dong
Seo-Ku Pusan Korea
(051)-242-2273



송 천홍(宋千弘)
반장
Song Cheon Hong
Teacher
Du San Elementary Sch.
Seo Dai Moon Ku
Hong Eun 2 Dong
8-894 Seoul Korea
385-8403 804-1112
802-9191



박 갑년(朴甲年)
Park Gab Youn
Teacher
Daegu Songmyong
Primary School
1638-5 Daemyong
10-Dong Nam-Gu Daegu
Korea
(053) 66-5111



안 형석(安炯錫)
Ahn Hyeong Suk
Teacher
San Gog Book Primary
School
604Ho 1 Dong Dong Won
Apartment 82-36
Sangokdong Bukgu
Incheon Korea
(032) 523-8272
(032) 522-5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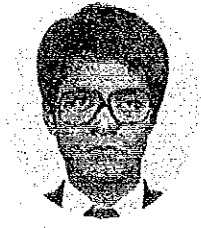
배 일한(裵一漢)
Bae Il Han
Teacher
Geobang Primary School
3.2 Apt B-201
373-13 Geobang-Dong
Masan Kyungnam Korea
(0551) 46-8872
(0551) 46-7035



장 래홍(張來興)
Chang Rae Heung
Teacher
Cheongju Cheongnam
Primary School
297-84 Tabdong SeoKTb
Apt 4-105
Cheong Ju-City
Chungbuk Korea
(0431)-53-8466
(0431)-56-4530



장 영주(張英周)
Chang Young Ju
Teacher
Shinchon Primary Sch.
Tonam Tenement House
(9-105) 811 Tonam-Dong
Cheju-City (Seoul) Korea
(690-029)
064-52-7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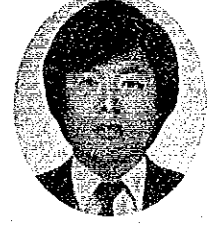
최 창해(崔昶海)
Choi Chang Hai
Teacher
The Chief of Science
Education
Kanung Elementary Sch.
Kyongido Uijongbu
Kangungdong Korea
(672-60) 5/4
(0351) 872-8504
(0351) 872-8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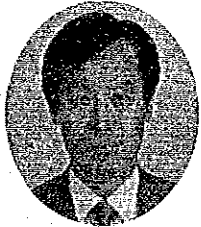
최 형주(崔亨柱)
Choi Hyeong Ju
Teacher
Dept. of Science
Songhak Elementary
School
964-7 Songjeong-Dong
Kwangsan-Ku
Kwangju-City Korea
(062)92-6158 (062) 92-
4006



한 상한(韓相翰)
Han Sang Han
Teacher
N/A
Jangjeon Primary Sch.
1001-43 (6-5) Namsan-
Dong Kumjeong-Ku
Pusan-City Korea
(051) 56-5023 (051) 513-
5674



현 상익(玄相益)
Hyun Sang Ick
Teacher
Seoul Seongsan Primary
School
Sang Sudong Mapogu 11-1
Sang Su Apt. C-513
Seoul Korea
(02) 335-3644 (02) 334-8103



장 두석(張斗煥)
Jang Doo Seok
Teacher
Jeomchon Primary Sch.
387-2 Mojeondong
Jeomchon-City
Kyungbuk Korea
0581-53-1828 0581-52-2440



장 규진(張桂珍)
Jang Gye Jin
Teacher
The Instruction Section
Chong Chon Elementary
School
88-7 Bongnam-Ri
Kurye-Up Kurye Gun
Chonnam Korea
0664-2-6260 0664-2-4014



김 우환(金友煥)
Kim Woo Whan
Teacher
Gae Lim Primary School
315 Hojoo-Apt 56-3 Dae
Dodong Pohang City
Gyeongbook Korea
(0562) 74-5487
(0561) 2-2040



이 요균(李堯均)
Lee Yo Kyun
Teacher
Kangneung Teachers
College
14 Tong 8 Ban Kumho-Dong
Sokcho Kagnwon-Do
Korea
32-5031 32-1548



이 용호(李庸浩)
Lee Yong Ho
Teacher
Seoul Shin Hak
Elementary School
Shin-Dong-Ah Apartment
3 Dong 401 Ho Bang Hak
3 Dong Do Bong Gu
Seoul Korea
(02) 907-7056 (02) 905-2802



이 용현(李溶顯)
Lee Yong Hyun
Teacher
Jung Ri Primary School
Gyoung-Seong Apt D-406
Hong Do Dong Dnng-Gu
Daejeon Korea
042-72-5996 042-72-7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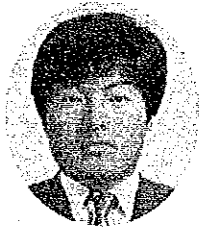
임 승태(林承太)
Lim Seung Tai
Teacher
The Chief of Physical
Education
Suwon Maesan Elementary Sch.
107-202 Jugong Apt.
Wooman-Dong
Suwon-City Kyonggi Do
Korea
(0331)35-4817 (0331)42-2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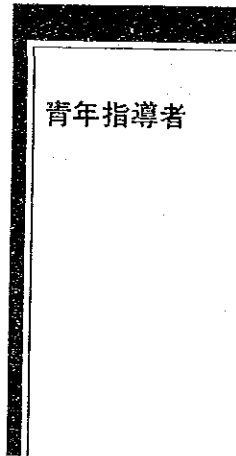
오 선호(吳善鎬)
O Sun Ho
Teacher
Cheonju Dongpuk
Elementary School
1556-41 Keumann-1-Dong
Cheonju-Shi
Chollapuk-Do Korea
(560-181)
(0652)74-4887
(0652)75-6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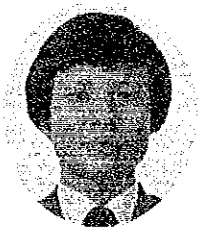
박 기대(朴基大)
Park Gi Dea
Teacher
Sam Chen Po No San
Primary School
476-1 Beal-Li-Dong
Sam Chen Po Kyongnam
Korea
0593-32-0574 0593-32-3602



유 병철(兪炳哲)
Yu Byong Chol
Teacher
Buyo Elementary Sch.
270 Hoedong-Ri
Nam-Myon Buyo-Gun
Chunngcheongnam-Do
Korea
(0463)34-2989 0463-2-2015



青年指導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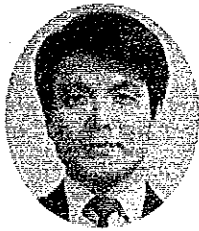
박 회경(朴熙正)
만장
Park Hey Jung
Arts Bureau
Ministry of Culture &
Information
1503 Dong-613Ho
Sang Gye-1 Dong
Nowon-Gu Seoul, Korea
931-6052 720-3836



배 성자(裨成子)
Bae Sung Ja
Secretary
Daegu City Council
Girl Scouts of Korea
#907-42 Naedangdong-
3 Dong Ser-Ku Daegucity
(053) 67-0425 (053) 753-35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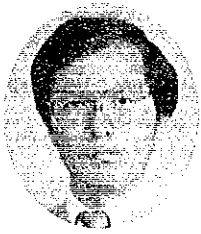
황 순길(黃順吉)
Hwang Soon Gill
Program Officer
Youth Section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452-8 Pukbyun-Ri Kim-
po-Eup Kimpo-Gun
Kyunggi Province
0341-84-2628 02-634-7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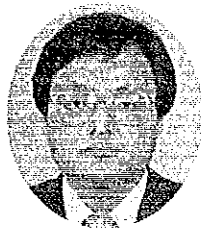
장 동진(張東鎭)
Chang Dong Jin
Assistant Director
Intl Coop. Div.
Ministry of Agri.
Forestry & Fisheries
55-206, Garak Apt.
Gagak-Dong
Songpa-Gu Seoul Korea
(138-160)
400-2177 503-7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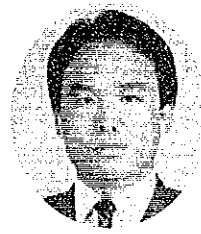
이 학제(李學宰)
Lee Hack Jae
Assistant Director
Arts Bureau
Ministry of Culture &
Information
20/8 285-11 Wolkye Dong No
Won-Gu Seoul Korea
905-9675 720-3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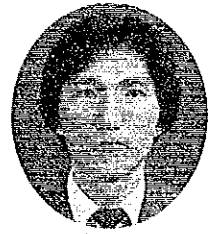
전 창효(金昌孝)
Jun Chang Hyo
Assistant Director
Bilateral Research
Cooperation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15/7 470-5 Myonmok 3
Dong Joongrang Gu
Seoul Korea (131-203)
495-9782 503-76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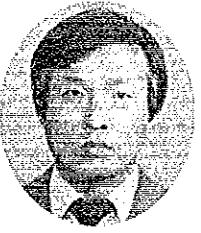
김 승윤(金承潤)
Kim Seung Yoon
Instructor
Korea Unesco Youth Cente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ongsin Apt. 202-510
395-3 Jungja-Dong
Jangan-Ku Suwon-City
Kyungki-Province Korea
(0331)46-8934
(0336)32-9052



이 근재(李根宰)
Lee Geun Jae
Assistant Director
Nuclear Safety Div.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Kwacheon
427-760 Republic of Korea
(02) 503-7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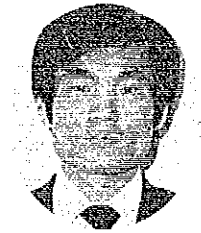
이 상구(李相九)
Lee Sang Goo
Social Worker
Seoul Association for
Youth Service
2-404, Inwang Apt.
#104 Hong-Jae 4-Dong
Seo-Daehun-Ku Seoul
734-1640 266-8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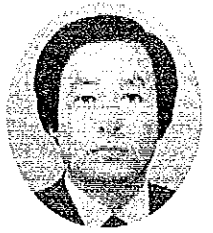
이 영규(李營圭)
Lee Young Kou
Teacher
Mathematics
Korea High School
82-40 Nockbun-Dong
Eunpyung-Gu
Seoul 122-020 Korea
(02)-356-7693 914-6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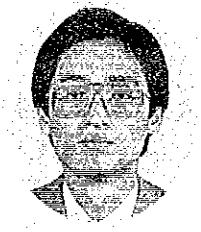
남 정달(南廷達)
Nam Jeong Dal
Supervisor for Youth
Social & Physical Dept.
Daegu Board of
Education
361-152 Ichon 2-Dong
Nam-Gu Daegu Korea
001-82-53-627-5293
(053) 752-9111



박 장열(朴長烈)
Park Jang Yeol
Youth Exchange Division
Ministry of Sports
Joogong Apt. 1616-306
624 Sanggye Dong
Nowon Gu Seoul Korea
934-6817 734-0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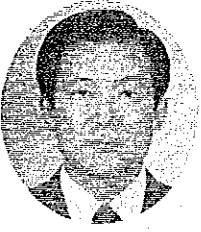
박 상태(朴相泰)
Park Sang Tae
The Head of A Section
Dept. of Welfare Development
Korean Labor Welfare
Corporation
163-2 Ho Heug Seog-1-Dong
Dongjag-Gu Seoul Korea
888-0280 634-9131-7



박 순태(朴淳泰)
Park Soon Tae
Vice Director
Ministry of Sports
Hong Un Dong 188-29
Samsung B/L Dong 205 Ho
Seodaemungu
Seoul Korea
353-0856 734-0183



서 정래(徐廷來)
Seo Jeong Rae
Assistant Director
Rural Youth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09-23 Bongcheon-7 Dong
Kwanak-Gu, Seoul Korea
(151-057)
02-882-8490 0331-292-4257



유 창성(劉昌成)
Yoo Chang Sung
Instructor
Educational Committee
of Province
405-3 Sujong Apt. Na
Dong 302 Youngwha Dong
Suwon City Kyunggi
Province Korea
0331-42-6286 0331-5-1786

5.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 1987년도 (100명)

	인수	실행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현등 창구기관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	JICA 코오디네이터
근로청년	35	青少年育成国民 会議	神奈川	關 東	韓國青年歡迎委 員會	神奈川県民部 青少年室	黒沢郁夫	浜田美知枝 森下隆雄 金 勝汎
농촌청년	25	中央青少年団体 連絡協議會	青 森	東 北	青森県青少年団 体連絡協議會	青森県総務部文 書課国際交流班	佐藤忠良	牛尾恵子 榎本美和
청년지도자 A	20	中央青少年団体 連絡協議會	栃 木	關 東	栃木県青少年団 体連絡協議會	栃木県県民生活 部婦人青少年課	西広咲子	板坂純義 坂本由紀惠
청년지도자 B	20	国際交流サービス 協会	福 岡	九 州	福岡県海外協会	福岡県企画振興 部国際交流課	増田忠幸	相田欣乃 松本周司

* 청년지도자 B 그룹에는 단장, 부단장, 간사가 포함된다.

● 1988년도 (99명)

	인수	실행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현등 창구기관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	JICA 코오디네이터
교원 A (국민학교교사)	25	中央青少年団体 連絡協議會	岩 手	東 北	岩手県青年団協 議會	総務部総務学事 課国際交流係	佛木 完	浜田美知枝 板坂純義
교원 B (중학교교사)	25	青少年育成国民 會議	和歌山	關 西	和歌山県海友會	民生部青少年婦 人課	趙 南星	森下隆雄 榎本美和
교원 C (고등학교교사)	24	国際交流서비스 協会	長 崎	九 州	長崎県海外協会	企画部国際交流 課	原谷治美	牛尾恵子 金 鐘憲
학생 (문과계)	25	世界青少年交流 協會	岐 阜	中 部	日本国際連合協 會岐阜県本部	総務部総務課	臼井千里	坂本由紀惠 徐 俛煥

* 단장은 교원 B 그룹, 부단장은 교원 C 그룹, 간사는 교원 A 그룹, 및 학생 그룹에 각각 1명씩 포함된다.

● 1989년도 (99명)

	인수	실행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현등 창구기관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	JICA 코오디네이터
근로청년	31	勤勞厚生協會	宮 城	東 北	仙台青年會議所	国際交流室	青山富士彌 寺井 昇	森下隆雄 榎本美和
학생	30	世界青少年交流 協會	香 川	四 国	香川県海外派遣 友の會	民生部青少年対 策室	臼井千里	坂本由紀惠 片 順五
교원	20	国際交流서비스 協会	北海道	北海道	北海道青少年団 体連絡協議會	総務部知事室国 際交流課	原谷治美	浜田美知枝 徐 俛煥
청년지도자	18	青少年育成国民 會議	島 根	中 国	島根県国際交流 青友會	総務部総務課	湊 明弘	牛尾恵子 高 龍煥

* 단장 간사는 근로청년 그룹, 부단장은 학생 그룹, 간사는 근로청년 그룹에 포함된다.

6. 1989년도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일수기간	국명	분야명	인수	실시협정단체	실사현
5월23일~6월22일 1진 97명	필리핀	학생	14	靑少年育成國民會議	和歌山
	"	교원	24	日本靑年團協議會*	三重
	싱가포르	학생	15	世界靑少年交流協會	新潟
	"	교원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鹿兒島
6월6일~7월6일 2진 144명	"	공무원 I	24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広島
	아세안혼성	학생	30	世界靑少年交流協會	北海道
	브루나이	교원·학생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栃木
	인도네시아	학생	25	世界靑少年交流協會	富山
	"	교원	24	中央靑少年團體連絡協議會	山口
6월27일~7월27일 3진 119명	필리핀	근로청년 (농업계)	20	靑年海外協力協會	山形
	"	테마 (B)	25	全國農村靑少年教育振興會	石川
	아세안혼성	공무원 I	30	靑少年育成國民會議	九州
	말레이시아	학생	20	日本유스스포츠協會*	長野
7월11일~8월10일 4진 99명	"	교원	19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大分
	태국	근로청년	25	勤勞厚生協會	愛知
	"	학생	25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福島
	대한민국	근로청년	31	勤勞厚生協會	宮城
8월22일~9월21일 5진 110명	"	학생	30	世界靑少年交流協會	香川
	"	교원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北海道
	"	청년지도자	18	靑少年育成國民會議	島根
	아세안혼성	공무원 II	3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沖繩
	인도네시아	공무원	25	勤勞厚生協會	岐阜
8월29일~9월28일 6진 126명	"	테마 (B)	15	靑年海外協力協會	北陸
	태국	농촌청년	25	全國農村靑少年教育振興會	秋田
	"	테마 (A)	15	世界靑少年交流協會	大坂
	브루나이	테마 (A)	9	日本經濟靑年協議會	茨城
	말레이시아	테마 (B)	21	全國農村靑少年教育振興會	大分
10월3일~11월2일 7진 84명	"	청년지도자	25	中央靑少年團體連絡協議會	山梨
	싱가포르	근로청년	24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宮崎
	"	공무원 II	24	國際交流서비스協會	靜岡
	"	청년지도자	23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徳島
	파푸아뉴기니	교원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岡崎
10월17일~11월16일 8진 202명	"	청년지도자	14	日本靑年團協議會*	福賀
	피지	공무원	12	日本經濟靑年協議會	佐取
	태평양	교원	13	日本유네스코協會連盟*	鳥岩
	"	공무원	25	世界靑少年交流會	手森
	아세안혼성	교원	30	日本유네스코協會連盟*	群馬
	인도네시아	근로청년	26	中央靑少年團體連絡協議會*1	滋賀
	"	테마 (A)	14	勤勞厚生協會	馬俣
	말레이시아	테마 (A)	20	日本經濟靑年協議會	兵庫
"	공무원	25	世界靑少年交流協會	長崎	
2월26일~3월28일 9진 50명	필리핀	테마 (A)	20	靑少年育成國民會議	大坂
	"	근로청년 (산업계)	27	日本經濟靑年協議會	高知
	태국	청년지도자	25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石川
	"	테마 (B)	15	靑年海外協力協會	熊本
	중국	경제청년	25	靑少年育成國民會議	靜岡
"	청년지도자	25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宮崎	
합계	아세안제국 6개국(798) 대한민국(99) 중국(50)		47그룹 1031명		

(주) ※표는 1989년도사업에서 신규로 협조한 실시협조단체

※ 1 : 실질적으로는 友愛靑年連盟이 담당함 테마 A : 과학기술산업의 현상 테마 B : 지방농업 지방지역산업 진흥

7.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青少年育成国民会議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National Assembly for Youth Development NAYD)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중앙 청소년 단체 연락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Japan)

Nihon Seinenkan 5F,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

世界青少年交流協會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The World Youth Visit Exchange Association WYVEA)

Yoshida Bldg., 2-7-3, Hirakawachō, Chiyoda-ku, Tokyo

日本国際生活体験協會 (일본 국제 생활 체험 협회)

(Japanese Association of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 EIL)

Tachibana Bldg., 6F, 4-5, Kojimachi, Chiyoda-ku, Tokyo

全国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 진흥회)

(The Rural Youth Edu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Sue Bldg., 3F, 4-19, Shin-ogawachō, Shinjuku-ku, Tokyo

日本經濟青年協議會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Junior Executive Council of Japan JEC)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勤勞厚生協會 (근로 후생 협회)

(The Working Youth Welfare Association)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유스워커 능력 개발 협회)

(Development Association for Youth DAY)

Hibiya Bldg., 6F, 1-1-1, Shinbashi, Minato-ku, Tokyo

國際交流서비스協會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Conference Service Association IHCSA)

The 1st Annex of the Foreign Ministry,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青年海外協力協會 (청년 해외 협력 협회)

(Japan Overseas Cooperative Association JOCA)

Dai-2 Sano Bldg., 6F, 5-10-24, Minami-azabu, Minato-ku, Tokyo

日本青年團協議會 (일본 청년단 협의회)

(Japan Seinenendan Council)

Nihon Seinenkan 2F,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

日本유네스코協會連盟 (일본 유네스코 협회 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Associations in Japan)

Shinjuku Centre Bldg. 38F, 1-25-1, Nishi Shinjuku, Shinjuku-ku, Tokyo

日本유우스·호스텔協會 (일본 유우스·호스텔 협회)

(Japan Youth Hostels, Inc.)

Hoken-kaikan, 1-2, Ichigaya, Sunadoharacho, Shinjuku-ku, Tokyo

國際協力서비스·센터 (국제 협력 서비스·센터)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Center ICSC)

Economic Cooperation Center Bldg., Annex 42, Ichigaya Honmura-cho, Shinjuku-ku, Tokyo

早稲田大学國際交流센터 (와세다 대학 국제 교류 센터)

Waseda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1-6-1, Nishi-Waseda, Shinjuku-ku, Tokyo 〒169

日本武道館 (일본 무도관)

Nippon Budokan

2-3, Kitanomaru-Koen, Chiyoda-ku, Tokyo 〒102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989)

1990年 3月31日

発行 国際協力事業団

〒163 東京都新宿区西新宿2-1-1
新宿三井ビル内

編集 (財)国際協力サービス・センター

〒162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42
経済協力センタービル

무단전재를 금함.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ANK
1-1-1, Kojimachi, Chiyoda-ku, Tokyo 100-8302, Japan